

채란업, 불황의 긴 터널 벗어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채란계 부화·종계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아리 200만수 감축효과—

□ 취재/김동진 기자

1. 배경

채란계 종계·부화업계에서는 지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한달동안 채란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병아리 분양을 전면 중단하는 극처방을 단행하였다.

지난해 7월에 입식된 종계가 142,000수로 같은달 2년동안의 평균 입식수(38,970수)보다 무려 364% 정도의 엄청난 물량이 입식되면서 이 계군들이 집중적으로 병아리를 생산하게 되는 금년 5, 6월 종계업계의 고전이 예상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와 맞물려 산란계 농장에서의 입추가 둔화되는가 하면 5월 이후 입식 성수기가 지나고 지금까지 추진 실시되어오던 주문생산체

제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병아리 가격이 붕괴되어 결국 5월에는 575원, 6월에는 555원에 형성되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계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5월 농장 실거래 가격이 사료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60원 이하의 최저가격이 형성

되어 채란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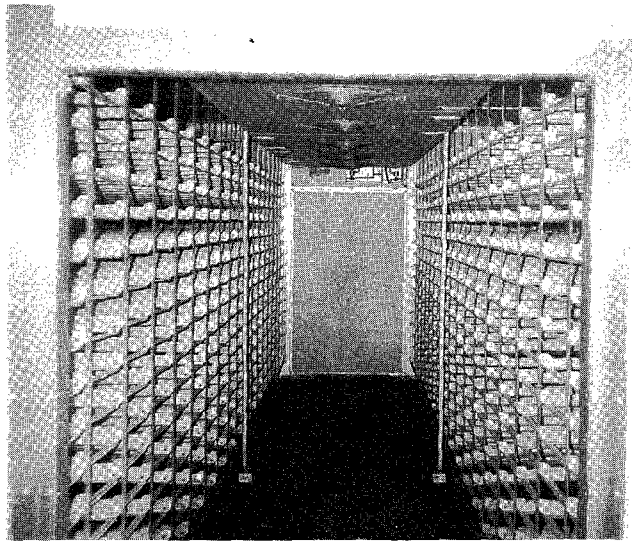
따라서 지난 5월 6일 산란실용계 생산 부화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모색한 결과 채란양계산업이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감한 생산조절밖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의



견을 같이하고 6월중 병아리 생산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병아리 생산중단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수차례에 걸쳐 주문 입란과 초생추 가격의 일정수준 유지를 결의하였으나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6월에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종란을 모았다가 7월에 양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변칙 운용할 가능성이 크며 종란은 일반 계란보다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종란을 식란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주내용이다.

결국 부화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생산중단이 최선책이라는데 뜻을 굽히지 않고 지난 5월 11일 본회(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13개 채란계 병아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란실용계 감축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6월중 한달간 병아리 분양 중단과 관련하여 종란 및 병아리 생산 중단기간, 감산 감시기구 설치, 지연입란 방지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감시단들이 두차례에 걸쳐 전국의 부화장을 방문하여 입란여부 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은 감축기간중 가동이 중단된 부화실 내부 전경)

결정된 내용을 보면 입란금지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달간으로 정하고, 병아리 생산금지 기간은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1달간으로 결정하였다.

입란이 금지된 종란은 전 물량을 식란(양계조합 등)으로 처리키로 했는데 단, 6월 7일부터 생산되는 종란은 입란금지기간 이후 입식에 대비해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연입란 방지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양계협회 직원과 부화장 직원을 감시단으로 구성하여 5월 하순경과 6월 5~6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 부화, 종계장을 돌며 확인작업을 실시키로 하였

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화장은 본지나 양계속보에 차후 공개키로 하였다.

2. 병아리 감축 결과

이번에 실시한 병아리 감산은 13개 산란계부화장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회 직원 및 부화장 직원으로 구성된 감시단들의 두차례에 걸친 확인조사를 통해 큰 무리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채란농장들도 감축운동에 부응하여 병아리분양이 중단된 시기인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병아리를 받지 않았으며 그 기간에 입추를 계획했던 농가들도 이 기간을

피해 입추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월간양계 및 양계속보를 통해 이 기간 중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장이 있을 경우 본회로 즉시 연락 하도록 통보했으며 1개월 동안 생산이 감축되더라도 불황을 완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병아리 생산감축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입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작업에 착수한 감시단은 1차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3개조로 나누어 전국 부화종계장을 방문, 부하기 입란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식란처분 상황과 향후 병아리 생산 계획량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2차로 실시한 현장 확인 조사는 부하기 가동중단 여부 및 부화장에 보관 중인 미처분 종란물량을 파악하는 한편 부화장에 공급하는 전 종계장의 종란보관 물량을 파악하여 의무적으로 난가공 공장에 처분토록 지도하였다.

서울경기양계축협 난가공공장과는 사전에 계란가격 및 계란대금 결제 등을 협의하여 부화장이 운송책임을 맡아 처리



△ 병아리 분양중단 기간중 산란계 농장에서는 감축운동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입추 계획에 있던 농장도 이 기간을 피해 분양을 받았다.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처리기간중 계란가격은 서울 경기지역 고시에서 18원을 인하한 가격에 거래되어 특란의 경우 보통 개당 60원에서 70원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지역의 부화장들은 난가공 공장에 의존하지 않고 계란 상인이나 지역 조합 또는 GP센터 등에 식란처리하면서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확인조사시 종란 보관실에 남아 있던 종란은 그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출하 확인서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입란지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되었

다.

이번에 감축한 물량은 3주(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동안 식란처리된 물량으로 볼 수 있다.

병아리 생산 중단은 4주동안 철저히 지켜졌지만 6월 7일 이후부터 생산된 종란은 일주일 동안 종란보관실에 보관되었다가 부화실에 입란되어 결과적으로 중지된 물량은 3주인 것이다.

조사결과 주당 70만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총 감산 물량은 약 200만수정도의 감산효과를 보게되었다.

6월 한달동안 병아리 판매 실적을 보면 83만6천수가 입식된 것으로 나타나 병아리

중단계획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 졌음을 볼 수가 있다. 이 물량은 6월 초에 생산된 1주일 물량으로 평소보다 약간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감산기간에 주문되었던 물량을 앞당겨 판매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3주 동안 200만수 정도가 감산되었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감축의의 및 효과

이번에 감축한 200만수의 산란계 병아리는 채란업이 오랜 불황의 늪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6월 한달동안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을 보면 3,395,000수가 잠재력상에 나타나 있다.

채란농가의 어려움으로 입추가 적어지고는 있으나 최소한 300만수는 입추될 것으로 볼때 올해 전반기까지 18,092천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물량이지만 소비가 20% 정도 줄어든 것과 비교해 볼때 연말의 난가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되어 채란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물량은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호재로 보기에 이른 감이 있다. 현재 생산되는 계란이 아직도 과잉생산에 놓여있으며 생산수수를 줄여가지 않을 경우 불황이 누적되어 모처럼 마련한 회복의 기틀을 흐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병아리 생산 중단으로 파생된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복경기를 앞두고 과거에 45~50일 동안 웅삼계를 키워 출하하던 물량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중복 직후인 7월 25일부터 한달동안 웅삼계가 출하지 못해 중복(7/22) 이후부터 말복(8/11) 이후까지 육계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 물량이 계란 생산에 들어가게 될 10월 말부터 경란생산에 영향을 미쳐 잔알 부족현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으며 11월 초부터는 경란에, 11월 말부터는 중란에, 1월 초순에는 대란에, 전체 계란생산의 60%를 차지

하는 특란 생산은 3월 말에 영향을 주어 이를 겨냥해 노계도태가 지연되고 환우계군들이 가세할 경우 이번 감축 효과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어 오히려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가를 생산비 선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육수수를 줄여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겠지만 성적이 나쁜 계군을 절대로 환우시키지 않는 철저히 농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실시한 감축운동은 일부 업자들이 식란처분되는 종란을 구입하여 병아리를 생산하거나 무허가 부화장 등에 위탁 부화를 시키는 변칙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적발이 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확인점검을 통해 전국에 소재한 산란계 부화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생산조절에 큰 효과를 기대해 본다. **양계**